

# SK-GS, 타이 BTX 프로젝트 수주

ATC의 BTX 건설공사 6억6000만달러에 ... 국내기업 컨소시엄은 처음

SK건설과 GS건설은 타이 국영 PTT 산하 ATC(The Aromatics Thailand Public)이 발주한 6억6000만달러 상당의 플랜트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다고 7월4일 발표했다.

해외에서 국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의 저가 경쟁에서 탈피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ATC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타이 방콕 동남쪽 250km에 위치한 Map Ta Phut 산업단지에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SK건설은 촉매개질 시설, 저장탱크 시설 및 지원시설 공사를 맡았고 GS건설은 BTX 플랜트 건설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 지분은 SK건설이 63%, GS건설이 37%이며 양사는 8월 공사에 들어가 2008년 7월 완공할 계획이다.

GS건설의 해외사업담당 허선행 상무는 “해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공사를 따낸 사례는 많았지만 국내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은 드문 일로 향후 해외건설공사 수주에서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윈-윈 전략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7/05>